



2019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2차)

1. 회의 일시 : 2019. 1. 9(수) 15:00~
2. 회의 장소 : 행정본관 4층 회의실 (26-405)
3. 위원회 위원

구 분	인 원	위 원
참석자	7명	김현준(기획처장), 박종국(총무처장), 박규생(예산부처장), 강형구(총학생회장), 박승현(경영대학 학생회장), 지찬술(공과대학 학생회장), 정영훈(외부전문가위원)
불참자	0명	
기 타	2명	안종한(예산팀장_간사), 서보호(학생복지팀_서기)

4. 안건

- 가. 2019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호선
- 나. 2019학년도 등록금 책정 논의

5. 심의내용 및 의결 사항

-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제6조 제3항에 의거, 재적위원 7명 중 7명 참석으로 성원 충족되어 아래의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함
- 제 1차 회의록에 대한 이견 없이 회의록 의결함

가. 2019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호선

- 간사: 2019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체 운영을 위한 위원장 호선에 대하여 안내하고, 위원장은 특별한 권한은 없으며 회의를 진행하는 회의체의 한 구성원임을 설명함
- 외부전문가위원: 작년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교직원위원 측에서 그동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왔기에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함
- 학생위원1: 3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함
- 교직원대표1: 부위원장으로 총학생회장을 추천함
- 모두의 동의로 위원장 기획처장, 부위원장을 총학생회장으로 호선함
- 위원장: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예산 및 결산 안에 대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권한이 있으며 회의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 상위법 및 교육부의 지침, 우리대학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등록금 책정이 되어야 함을 설명함



- **간사:** 올해 정부에서 제안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등록금 인상 가능 비율이 2.25% 임을 설명함
- **교직원대표2:** 우리대학은 2009년 이후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고 있음을 설명함
- **간사:** 작년에는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 2유형을 지원받지 못하고,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참여를 못하도록 하였으나, 올해는 뉴스 기사를 확인해 보니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사무관이 국가장학 2유형 지원불가는 변동이 없으나, 국가재정지원사업에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는 듯 하다고 설명함
- **위원장:** 교육부에 정확하게 질의를 하겠다고 함
- **학생위원1:** 올해 입학금 인하 비율에 대해서 질의함
- **간사:** 입학금은 작년에도 20%가 감축되었고, 올해도 20% 감축 예정임을 설명함
- **위원장:** 등록금 인상이 없더라도 입학금이 줄어서 자연스럽게 총 예산이 감축됨. 등록금 인상 문제는 국가장학 2유형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득실비교가 필요하다고 함. 이 점이 등록금 책정에 중요함을 설명하고, 11년째 동결 또는 인하한 상황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함
- **교직원대표2:** 2018년 소득분위 7분위까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았음을 설명함
- **위원장:** 등록금 책정과 관련해서는 관련법규 및 지침, 학교의 사정을 파악하고 난 뒤에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함. 2018년에 학교가 기본역량진단을 받았고, 영남권 대학 중에서 자율개선 대학으로 통과는 하였으나, 높은 점수는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 하며 평가 중 한 요소가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가장학을 포함하는 중앙일보 평가에서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가 됨을 설명함. 이는 실제로 장학금을 적게 주고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등록금을 낼 여력이 있는 학생이 타 대학에 비해서 많이 있다는 이야기도 가능하다고 설명함
- **학생위원1:** 등록금 인상은 가능하나, 지표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인지 질의함
- **위원장:** 등록금을 올리고 그 재원을 대부분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주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라고 함. 수도권 대학은 과거 등록금 인상을 많이 해 놓아서 그 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우리대학은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지 오래되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함. 만약 인상이 된다면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지원해도 상관없다는 점을 설명함
- **외부위원:** 입학금이 많이 줄었는지 질문함
- **위원장:** 작년에도 20%가 감축되었으며, 올해도 20% 감축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우리대학은 작년에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어 3년간 자율개선대학 지원금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입학금 감소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외부위원:** 자율개선대학이란 대학이 자율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라는 의미인데, 별도 정원 감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 **위원장:** 올해부터 3년간 별도 감축을 하진 않지만 3년 뒤에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함
- **학생위원3:** 만약 등록금을 인상해서 국가장학 2유형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구제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 **위원장:** 국가장학 1유형이 소득수준으로 주는 장학이고, 국가장학 2유형은 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장학이라고 설명함. 현재는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 2유형을 대학으로 교부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정책 때문에 선뜻 타 대학들에서 등록금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함
- **학생위원1:**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 되어서 재정이 나아진 것이 아닌지 질의함
- **위원장:**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원금을 주면서 다른 국가 재정사업이 종료가 되었다고 설명함
- **학생위원1:** 최근에 인상된 학교가 있는지 질의함
- **위원장:** 작년에 경희대가 시도했다가 언론보도에서 논란이 되어 하루 만에 인상철회 했음을 안내하고, 포항공대의 경우는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 최근에 인상했다고 설명함
- **학생위원1:** 파급력을 생각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함
- **위원장:** 등록금의 인상여부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면서 잘 논의해 보자고 함. 등록금 심의위원회 기능은 등록금 책정이 한가지이고, 두 번째 일은 예산안 의결기능도 있다고 설명함. 따라서 2019학년도 예산안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함
- **간사:** 일단은 동결한다는 전제하에 예산 논의를 해보아야 할 것 같다고 함
- **위원장:** 10년간 인상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많이 줄어있다고 생각함. 가안이라도 학생위원들과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함
- **학생위원1:** 사전에 미리 예·결산안을 보고 다음 차수에 이야기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함
- **교직원대표3:** 등록금은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것 보다, 교육 수준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함. 우리대학이 1980년 종합대학으로 승격이 되고 채용되었던 많은 교원들이 향후 4~5년 안에 퇴직할 예정임을 설명함. 최근에는 예산이 감축되면서 타대학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아서 교원채용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이런 점까지 같이 고려해서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함
- **위원장:** 학생위원은 1년에 한번 활동하고 있어서, 연속성에 대해서는 시야가 좁아질 수 있지만 가능하면 서로의 입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이 오고 갔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함. 10년 동안 다른 부분에서는 감축을 했지만 기숙사도 짓고, 산업단지캠퍼스를 오픈할 정도로 학교 나름대로 재정살림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설명함.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일명 연봉을 적게 주는 교원, 연봉을 적게주는 직원을 채용해서 버티고 있는 곳도 있다고 설명함.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의 숫자가, 학생 수가 줄어든 비율 이상으로 줄어들음을 설명함. 따라서 최근에는 교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대학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감안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함
- **간사:** 등록금 책정은 다음주 금요일까지는 마감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함
- **위원장:** 동의하며, 1/15(화)에 3차 회의를 진행하고 논의사항이 많아지면 수금 요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한다고 함



- 학생위원1: 동의하며, 학생위원들이 목요일에는 어렵고 다른 날은 가능하다고 함
- 위원장: 1/15(화) 15:00에 3차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전에 교육부에 질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함
- 학생위원1: 다음주 월요일 즈음 예산팀에 방문하여 예·결산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함
- 위원장: 3차 회의는 2019. 1. 15.(화) 오후 3시 이후로 의결하고 회의를 폐회함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9. 1. 9.

구분	직책	성명	서명
교직원대표	위원	김현준	김현준
	위원	박종국	박종국
	위원	박규생	박규생
학생위원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	박승현	박승현
	위원	지찬솔	지찬솔
외부전문가	세무사	정영훈	정영훈